

제5장 공항 정보

제1절 출입국 수속 관련 정보

1. 도심공항터미널

- ❖ 도심공항수속 서비스란 특정 항공사의 항공편을 탑승하는 여객에 한해 도심공항에서 탑승수속, 수하물 탁송과 출국수속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 ▶ 도심공항은 서울역 내와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 광명역에서도 올해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빠르게 출국수속을 끝마칠 수 있으며, 수하물 위탁 후 이동하기 때문에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음.
- ❖ 인천공항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속을 마쳐야 하며,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출발 2시간 10분 전(일본항공은 출발 2시간 30분 전), 국내선은 출발 2시간 전까지 수속을 마쳐야 함.

가. 서울역 도심공항

- ❖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철도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5-1>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위치

- ❖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인천공항행 직통열차표를 구입한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함.
 - ▶ 인천공항 이용객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함.
- ❖ 본인이 탑승할 항공사의 카운터로 가서 탑승 및 수하물 탁송 수속을 함.
 - ▶ 서울역 도심공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과 중국남방항공 5개 항공사 이용객에 한해 수속이 가능함.
 - ▶ 단, 2017년 10월 26일부터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조치에 따라 미주 노선의 경우 출국수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 옆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다시 출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 ▶ 출발층 도심공항 이용객 전용 통로에서 보안검색을 받은 후, 바로 면세 구역으로 입장이 가능함.

-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과 출국심사까지 완료한 고객은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의 전용 출국통로 이용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인천공항 출국장 내 전용 출국통로

〈그림 5-2〉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및 인천공항 출국장 내 전용통로

나. 삼성역 도심공항

- ❖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코엑스 본권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6번 출구 또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에서 가까움.



〈그림 5-3〉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위치

- ❖ 삼성역 도심공항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여행객에 대해 수속이 가능함.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타이항공,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에어캐나다, 필리핀항공, 미아트몽골항공, 중국동방항공, 상해항공, 중국남방항공, 일본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프랑스 등 17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해 수속이 가능함.

- ❖ 국적항공사의 경우 5시 2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제주항공과 외국적항공사는 5시 1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함.
- ▶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출발 3시간 전에 탑승수속이 마감되며, 김포공항 국내선의 경우 출발 2시간 10분 전, 국제선의 경우 출발 2시간 20분 전에 탑승수속이 마감됨.

〈표 5-1〉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항공사별 탑승수속 예외사항

항공사	항공편 및 내용
카타르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오전 6시 30분 탑승수속 개시
미아트몽골항공	오전 9시 탑승수속 개시
중국동방항공	오전 11시 55분 출발 항공편(인천)부터 수속 가능
중국남방항공	오전 10시 50분 출발 항공편(인천)부터 수속 가능
필리핀항공	PR467(마닐라), PR469(마닐라), PR491(칼리보), PR493(클락) 편만 수속가능
일본항공	오전 5:30 탑승수속 개시, 김포공항 출발편 2시간 30분 전 탑승수속 마감

자료 :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 ▶ 미국 TSA의 항공 보안 강화 조치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부터 제주항공의 대양주(괌·사이판) 노선 탑승객은 항공기 출발 3시간 30분전까지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 ▶ 수속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20~30분의 여유 시간을 두고 오는 것이 바람직 함.
- ❖ 외국적항공사 및 제주항공의 부정기편 항공편은 도심공항에서 탑승수속이 불가능하므로, 항공사 예약센터에서 부정기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표 5-2〉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불가능한 항공편

항공사	항공편 및 내용
제주항공	9시 이전 출발 항공편 수속 불가, 미주행(사이판·괌) 수속불가
중국동방항공	18시 30분 이후 출발 항공편 수속 불가
필리핀항공	PR485(세부), PR487(칼리보), PR489(칼리보), 2P2483 / PR1483(탁빌라란)
미아트몽골항공	OM308(울란바토르)

자료 :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 ▶ 필리핀 국가의 사정에 의하여 필리핀항공 및 제주항공 필리핀 노선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반드시 전자항공권(E-ticket)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탑승수속이 불가능함.



〈그림 5-4〉 도심공항터미널 One-Stop Service

- ❖ 공동운항편의 경우 운항 항공사의 탑승수속 카운터를 이용하여야 함.
 - ▶ 기본적으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해당 항공사 운항편, 해당 항공사 이용 승객의 탑승수속이 가능하나, 항공편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도심공항터미널 02) 551-0077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 도심공항 1층에서 탑승수속 및 수하물 탁송 후, 도심공항 2층 '범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사를 받음.
 - ▶ 탑승수속과 출국심사를 완료하면 2층 매표소에서 리무진 버스 티켓 구매 및

승차를 할 수 있음.

- ❖ 리무진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하차 후에 출발층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전용 통로를 지나 출국장으로 입장이 가능함.
 - ▶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의 3층에 전용 통로가 있음.
 - ▶ 인천공항행 공항버스는 6103번으로 10~20분 간격으로 배차되어 있음.

다. 광명역 도심공항

- ❖ 2018년 1월 17일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이 개장하였음.
- ❖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소요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광명역에는 대부분의 KTX가 정차하고 있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갈 수 있음.
 - ▶ 충청, 영남, 호남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방법은 공항리무진 버스를 이용하거나 인천국제공항역까지 운행하는 KTX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공항리무진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천공항행 KTX는 열차 운행 횟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었음.
 -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2월 1일~2월 28일)까지는 올림픽 지원을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KTX가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단축 운영될 예정이므로, 이 기간 동안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경우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 KTX 운행 단축에 따른 불편함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최근 부천 송내역에서 KTX 광명역을 30분 이내에 이어주는 8808번 직통 셔틀버스가 운행하면서, 경기 남부권에서도 인천공항에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경기 남부의 경우, 기존 도심공항터미널인 삼성동과 서울역에 접근하기 불편하여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음.

KORAIL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더욱 여유롭게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혼잡한 공항보다 여유로운 출국수속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 후
인천공항 전용출구를 이용해 출국

기존 공항버스보다 1시간 이상 절약
부산-인천공항 약 2시간 절약
광주-인천공항 약 1시간 50분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1월 17일 OPEN

- 운영시간 | 06:30~19:00
- 입찰 항공사 | 대한항공 등 7개 항공사 참여(2018년 3월 입찰)
- 미주노선(미국, 캄, 타이완 등) 18년 6월부터 체크인 가능 (미국교통안전청 인증필요)
- 수속 마감 | 항공기 출발 당일 3시간 전

리무진 버스

- 운행구간 | 광명역 → 인천공항 (약 50분 소요)
- 운행시간 | 06:30~21:00 (광명역 → 인천공항)
06:10~22:20 (인천공항 → 광명역)
- 운행횟수 | 84회 (20~30분 간격)
- 승차권형 | 27인승

〈그림 5-5〉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개장

- ❖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방향에 있으며, KTX 하차 후 한 층 올라온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음.
- ❖ 이용 가능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이며, 진에어는 2018년 상반기 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탑승수속을 마감하고 있으며, 업무시간은 6:30~19:00임.
- ❖ 탑승수속을 마치고, 같은 층에 위치한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심사를 한 후, 광명역 4번 출구로 나와 인천국제공항(T1, T2)로 향하는 리무진버스를 이용하면 됨.



〈그림 5-6〉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절차

- ❖ 리무진버스는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한 층 더 올라간 후 4번 출구에서 이용가능하며, 20~30분 간격으로 배차되어 있음.
- ▶ KTX 공항버스는 6770번이며, 인천공항 제1터미널까지는 50분, 제2터미널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며 운임은 15,000원으로 동일함.

- ▶ 광명역행 운행시간은 출발시간 기준으로 6:10~22:20, 인천공항행의 경우 5:20~21:00임.
- ▶ 6770번 승차권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구매 가능하며, 버스내에서 교통카드 현장 결제도 가능함.
- ▶ KTX와 리무진버스를 연계하여 통합결제하는 경우에는 버스 운임을 3,000원 할인 받을 수 있음.

2. 셀프체크인(공항) 및 셀프백드랍

가. 셀프체크인

- ❖ 셀프체크인이란 자동탑승발권기기(KIOSK,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탑승수속과 좌석 배정, 마일리지 적립, 탑승권 발급 등을 여객이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함.
- ▶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기존 카운터에서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3분 이내에 탑승수속을 마칠 수 있음.
- ▶ 그러나 비자 및 수속 문제 때문에 모든 항공사 이용객이 가능한 것은 아님.

〈표 5-3〉 인천공항 셀프체크인기기 이용 가능 항공사 및 위치

항공사	위치	항공사	위치
대한항공(KE)	A, B, C, D, F, H, J, K, L, M	아시아나항공(OZ)	A, B, C, D, F, H, J, K, L, M
유나이티드항공(UA)	J	델타항공(DL)	C, D
캐세이퍼시픽항공(CX)	H	네덜란드항공(KL)	H, F
중국국제항공(CA)	H	아메리칸항공(AA)	K
남방항공(CZ)	C, D	이스타항공(ZE)	E
에어서울(RS)	K	티웨이항공(TW)	G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 김포국제공항(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전일본공수), 김해국제공항(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캐세이드래곤), 제주국제공항(대한항공)에서 셀프체크인 이용이 가능함.
- ▶ 김포·제주공항은 셀프체크인 기기를 이용해 스스로 탑승 수속을 마친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통로’를 도입할 예정임.

- ▶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 교통약자 전용 셀프체크인을 운영하여 일반 셀프체크인보다 이용하기 편리함.
- ❖ 항공사의 기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공사 및 항공편명 선택→ 예약번호 또는 항공권 번호 입력 → 여권 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 항공기 좌석 선택 → 탑승권 출력의 과정을 통해 탑승수속이 이루어짐.
- ▶ 탑승권을 발급받았으면 해당 항공사 수하물 전용 카운터에서 빠르게 짐을 위탁할 수 있음.



〈그림 5-7〉 셀프체크인 이용방법

나. 웹·모바일 체크인

- ❖ 항공사 카운터에 들러 필요 없이 항공사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e-Ticket 예약번호 또는 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좌석을 배정받고, 탑승권을 받을 수 있음.
- ▶ 모든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항공사를 통해 이용하는 항공편의 웹·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이용 항공사의 전용카운터에서 별도로 위탁하여야 함.
- ❖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9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모바일 앱에 여권 스캐너 기능을 탑재하였음.

- ▶ 여권 스캐너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권 사진면 판독란을 인식시켜 손쉽게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종전 여권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였음.

다. 셀프백드롭

- ❖ 셀프체크인이나 웹·모바일 체크인을 마친 후에 빠르게 짐을 부치고 싶다면 '셀프백드롭'(Self Bag Dr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셀프백드롭은 항공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자동화기기를 통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는 서비스임.
 - ▶ 현재 인천공항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탑승 여객이 이용 가능함.



<그림 5-8> 인천공항 셀프백드롭 위치(여객터미널 3층)

- ❖ 자동수하물위탁 기기에 탑승권 인식 시킨 후 수하물 태그만 발급받으면 간단히 수하물 위탁을 마칠 수 있음.



<그림 5-9> 셀프백드롭 이용방법

❖ 셀프백드롭 이용 시,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표 5-4〉 항공사별 셀프백드롭 규정

항공사	이용가능승객	수하물 무료 허용량	이용 가능 시간	이용 제한
대한항공	셀프체크인(웹/모바일/키오스크)을 이용해 일반석 탑승권을 발급 받은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물 1개 (23Kg) - 초과수하물 혜택 적용 불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이용가능시간은 A, F, M 카운터별 상이)	미주행, 연결여정, 코드쉐어 항공편 승객, 유아동반승객, 모닝캄클럽 또는 프레스티지석 이상 승객
아시아나 항공				미주행, 유아동반, 연결편이 있는 승객, 우수회원(골드) 혹은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승객
에어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nomy Class : 수하물 1개 (23kg) - Premium Economy Class : 수하물 2개 (23kg) - Business & Eligible Customer : 수하물 2개 (32kg) - 23Kg 초과되는 수하물은 'Heavy Tag'를 반드시 붙여야함 - 초과수하물 혜택 적용 불가 	6시10분부터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유아동반 승객, 비동반 소아(14세 미만), 특별 도움이 필요한 승객
KL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nomy Class : 	20시30분부터	

항공사	이용가능승객	수하물 무료 허용량	이용 가능 시간	이용 제한
네덜란드		수하물 1개 (23kg) - Business & Eligible Customer : 수하물 2개 (32kg) - 23Kg 초과되는 수하물은 'Heavy Tag'를 반드시 붙여야함 - 초과수하물 혜택 적용 불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제주항공		- 수하물 1개 (15kg) - 초과수하물 혜택 적용 불가	06:10 ~ 19:00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미주행(괌/사이판), 탑승권 미소지 승객, 수하물을 이미 위탁하신 승객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 이 외에도 셀프백드랍 이용 시에는 본인의 수하물만 위탁이 가능하며, 폭발물이나 라이터 등 기내 반입금지물품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그림 5-10〉 셀프백드랍 위치(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3. 패스트트랙

- ❖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장기간 대기가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인천공항 동·서편에 전용출국장 2개소를 설치하여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전용출국통로를 통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 ▶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보행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이 포함되며, 교통약자 동반자도 3인까지 함께 이용이 가능함.
 - ▶ 이외에도 법무부가 총괄·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도 동반여객 3인까지 출국 시 함께 이용할 수 있음.

〈표 5-5〉 패스트트랙 이용대상 세부기준

구분		내용	확인 방법
교통약자	보행장애인	1급~5급	장애인 수첩
	유소아	만 7세 미만	여권
	고령자	만 70세 이상	
	임산부	임신 중인 산모	임산부 수첩
	항공사 병약여객	휠체어, 항공침대, 의료용 산소 등 필요여객	항공사 직원 동행
출입국우대자	ABTC카드소지자	10만 불 이상 수출입기업 임직원	해당 카드 소지
	외국인투자자 카드소지자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외국 본사 및 외국경제단체 임직원/투자시찰단	
	모범납세자	3년간 10억 원 이상 관세납부자	
	종합인증우수업체 카드 소지자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 등 충족기업 관계자	
	기업인 카드소지자	고용 및 수출우수 기업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국내 관광산업 진흥 또는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인 금융투자자	영업기금 70억 이상의 외국금융기관	법무부 발행

구분	내용	확인 방법
	주재원	출입국 우대카드
동반성장 우수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탄력근무, 출산양육, 부양가족 지원우수기업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기업	범죄피해자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 우수업체	
출소자 고용우수기업	출소자 일터 나눔 등 우수업체	
고용창출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기여도 우수업체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인천공항에서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장애인수첩·임산부수첩 등으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전용출국통로 출입증'을 발급 받아 전용출국장 입구에서 제시하면 됨.
- ▶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는 별도의 패스 없이 출입국우대카드를 전용 출국장 입구에서 제시하고 이용할 수 있음.



〈그림 5-11〉 전용출국통로 출입증

- ❖ 한국공항공사도 교통약자 및 유소아 동반 승객을 위한 우선 보안검색대를 운영하고 있음.

4. 자동출입국심사

- ❖ 자동출입국심사(SEs: Smart Entry Service, 이하 SES)란 사전에 여권정보 및 생체정보(지문 및 안면)를 등록한 후 입·출국 심사 시 별도의 SES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말함.
 - ▶ 자동출입국심사를 활용하면 출입국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됨.
 - ▶ 자동출입국심사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에서 이용 가능함.
- ❖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과 만 17세 이상인 등록외국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 ▶ 만 7세~만 18세 이하의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의 경우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복수여권을 지참하여야 함.
 - ▶ 또한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사전등록 시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이 가능함.
- ❖ 사전 등록은 각 공항과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도심공항 등에서 가능함.
 - ▶ 등록센터에 여권을 제시하고, 생체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후 지문을 등록·사진을 촬영하면 사전등록절차가 완료됨.

〈표 5-6〉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등록센터		위치
공항	인천국제공항	3층 체크인카운터 F 구역 앞
	김포국제공항	2층 출입국민원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2층 출입국심사장 안
		국제선 2층 출국사무과
	대구국제공항	2층 대구출입국 공항분실 내
	제주국제공항	3층 귀빈실 옆
	청주국제공항	1층 여객청사 동편(청주출입국 공항분실)
도심공항	삼성동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2층
	서울역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2층 서울역출장소

주 : 공항과 도심공항 이외에도 6개 도시 출입국사무소와 인천항, 부산항에서도 등록가능
 자료 : SES

- ❖ 출국 시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자동 출국 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입국 시에는 바로 자동 입국 심사를 받은 후 수하물 찾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함.



〈그림 5-12〉 전용출국통로 이용 방법

- ❖ 자동출입국심사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갔을 때도 이용이 가능함.
 - ▶ 우리나라는 미국, 홍콩, 마카오와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맺어, 상대국의 공항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 미국, 홍콩, 마카오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등록센터에서 대면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함.

5.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도착에서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포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
 - ▶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항공기 출발 2일전까지 공사 컨택센터(1661-2626)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항 도착부터 고객이 이용할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까지 또는 도착장에서부터 공항 내 고객이 원하는 지점까지 휠체어 이동을 도와줌.
 - ▶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하네다공항 및 5, 9호선 및 공항철도와 Hot Line 구축으로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 ❖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에는 커브사이드에 전용 승하차구역

확보 및 여객청사 내외 주요지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헬프포인트' 운영, 안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전동휠체어 충전존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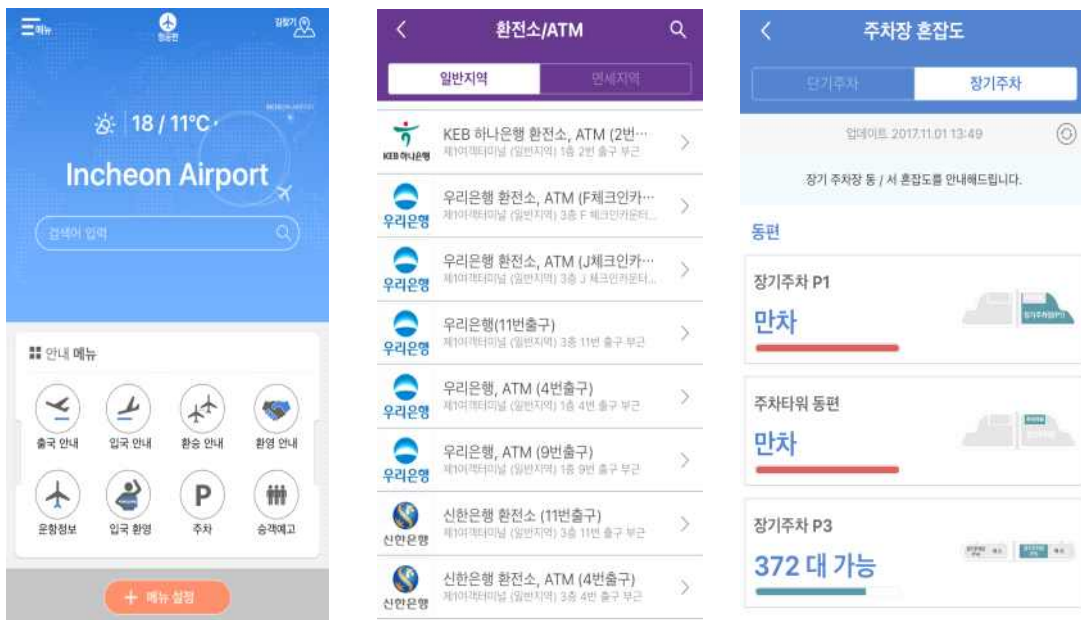
- ❖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헬프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헬프폰 수화기를 들면 터미널 내부 가장 가까운 안내데스크로 Hot Line이 연결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음.
 - ▶ 특히 항공기 탑승까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의 경우, 승객이 이용할 항공사의 체크인 게이트까지 이동을 돕고 있음.
- ❖ 헬프폰 위치는 여객터미널 1층 3번과 9번 출구, 여객터미널 3층 3번, 7번, 8번, 12번 출구의 전면에 있음.
- ❖ 일부 항공사는 장애, 질병, 고령 등 신체적·건강상의 거동이 불편한 승객에게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탑승수속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을 전담 직원이 보조함.
 - ▶ 항공사 및 항공기종에 따라 일부 휠체어는 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탑재하고자 하는 여객은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함.
 - ▶ 그 외에도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6. 애플리케이션

- ❖ 인천공항은 넓은 공항 내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제공하여, 공항 내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앱을 이용하면 인천공항을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항 내부 길 안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 ▶ '출입국 안내'에서는 출국와 입국, 환승과 환영을 위한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출·입국장의 실시간 혼잡도를 알 수 있음.
 - ▶ '식음료, 쇼핑, 휴식, 서비스' 메뉴에서는 공항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식당, 쇼

핑 및 편의시설의 정보와 위치를 제공하고 있어 출국 시 필요한 환전소, 로밍 센터 등의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

- ▶ ‘길안내’ 메뉴는 공항 내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공항 목적지까지의 경로와 예상 소요시간을 알려줌.
- ▶ ‘교통/주차’ 공항 접근교통 외에도 주차장 혼잡도와 이용가능한 주차장을 안내하며, 주차중인 차 정보를 입력하면 주차된 위치와 주차요금 등을 알려줌.



〈그림 5-13〉 인천공항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 ❖ 한국공항공사도 전국 14개 공항의 운항정보와 시설안내, 공항 주변 관광지 및 교통 정보,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등 항공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항 가이드’ 앱을 제공하고 있음.
 - ▶ 해당 앱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제공이 되며, 교통약자 시설물 안내 페이지는 음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 국토교통부는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절차 및 보안검색장비,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공항별 보안 검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보안정보통’ 앱을 제공하고 있음.

- ▶ 탑승수속 전 앱을 통해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이나 보안 검색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면 더 빠르게 탑승수속 및 출국심사를 마칠 수 있음.



〈그림 5-14〉 항공보안정보통 애플리케이션

7. 미국행 항공여객 보안강화

- ❖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지난 6월 민간 항공기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직항편을 운항하는 해외 공항들에 적용할 보안규칙을 강화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 이에 따라 탑승객에 대한 몸수색 등 전반적 보안검사 강화, 개인 전자기기에 대한 정밀 검사 실시, 항공기 주변뿐 아니라 탑승 대기공간에 대한 보안절차 강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 새 보안대책의 수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 항공사는 미국 직항편 운항이 금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 강화된 보안규칙에 따라 올해 10월 26일부터 - 10월 26일부터 국내 저비용항공 사(LCC)와 델타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 외국항공사(미국 국적기)는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하였음.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TSA로부터 각각 내년 2월 20일까지, 4월 24일까지 유예 승인을 받음.
- ❖ 미국으로 가는 여객들은 항공권 발권 카운터 앞, 환승검색장 앞, 탑승구 앞에서 보안인터뷰를 추가로 받게 되었음.
 - ▶ 1차 보안검색 시 여행 목적,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을 묻는 보안 질의하여 답변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승객은 '요주의 인물'로 분류됨.
 - ▶ 그 외에도 TSA는 항공사들이 항공기 출발 72시간 전 제출한 탑승객 명단을 검토하여, 명단에서 요주의 인물을 지정·통보함.
 - ▶ 요주의 인물로 지정되면 오른쪽 하단에 작게 'SSSS'라는 문자가 찍힌 탑승권을 받게 되며, '2차 보안검색 대상'이 됨.
 - ▶ 2차 보안검색 대상이 되면 탑승동과 여객기를 이어주는 탑승교에서 신발을 벗고 가방 등을 열어 보이며 항공사 보안요원에게 추가 검사를 받게 됨.
- ❖ 보안강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항공기 출발이 가능하도록 항공사들은 항공사는 수속카운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직원도 추가 투입하고 있음.
 - ▶ 에어부산, 제주항공은 미국행 탑승수속 카운터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탑승수속 카운터를 지원하거나 동남아 등에서 미국으로 환승하는 고객 인터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임.
 - ▶ 또한 승객들은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전 미리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장하며, 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로 환승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내리면 곧바로 환승 검색장으로 이동하여야 함.